

노년기 여성의 건강정도 및 자아통합감이 외모관심에 미치는 영향

안 성 아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전임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아통합감 및 외모관심의 차이를 조사하며, 건강정도에 따른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아통합감에 따른 외모관심의 차이를 파악하며, 외모관심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통한 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진주 및 진주근교에 거주하는 60, 70대 노년기 여성 117명이었다. 자아통합감의 측정도구는 김정순(1989)이 개발한 31문항이었으며, 내용은 지나온 인생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수용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5단계 Likert형으로 측정하였다. 자아통합감의 전체 문항 중 문항간의 상관관계와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제외한 총 26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α 신뢰도는 .92이었다. 건강정도와 외모관심은 노년기 여성의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정도와 외모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5단계 Likert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배우자동거여부, 용돈을 조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3년 9-10월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통합감과 외모관심은 연령, 학력,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아통합감은 60대가 70대보다 높으며, 학력이 높고 용돈이 많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정도에 따른 자아통합감은 보통 이상의 건강한 집단이 나쁜 집단보다 자아통합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여성은 건강할수록 지나온 인생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수용 등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통합감에 따른 외모관심은 자아통합감이 중간 이상의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모관심은 자아통합, 용돈, 건강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beta=.212, .292, .219), 3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27.9%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여성은 자아통합감이 높고 용돈이 많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건강정도, 용돈, 배우자 여부는 자아통합감을 통하여 외모관심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노년기 여성의 경우 자신의 노화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며,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정도와 용돈은 외모관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노년기 여성의 외모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